# “시국이 어순실” 정치풍자 전성시대

## 개콘 “최순실 트럼프에게 수출…창조경제 바람 불것”
## 웃찾사 “올해가 무슨 해인줄 아시죠? 병신년입니다”
## tvN ‘SNL코리아’ 시작으로 비판 수위 높은 개그 인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자유로운 창작을 억누르는 분위기 속에서 한동안 잦아들었던 국내 정치풍자 코미디가 되살아나고 있다. 시청자들은 갑갑한 현실 정치 때문에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듯한 사이다 같은 대사에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다.

◇개그콘서트, 국정농단 사태에 신랄한 풍자=KBS 2TV의 개그 프로그램 ‘개그콘서트’는 요즘 신랄한 정치 풍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시사개그 코너 ‘민상토론2’에서는 개그맨 유민상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미국 트럼프에게 수출하자”는 말을 꺼내자 동료 송준근은 “조만간 미국에도 창조경제의 바람이 불 것 같다”고 받아넘겼다.

유민상은 동료 김대성이 통신사 광고 촬영을 한 것을 이유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감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대성은 유민상이 최씨가 비선 실세로 활약하기 시작한 2013년 느닷없이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면서 ‘최순실 연예인’으로 몰아세웠다.

이어 유민상이 퀴즈쇼 ‘1대100’에 나가 우승을 하고 상금 5000만원을 받아 스포츠 재단에 기부했는데 문제를 유출한 문고리 3인방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해 폭소가 터지게 했다.

개그우먼 이수지는 최씨를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등장해 두부를 먹는 모습을 연출해 웃음을 자아냈다.

◇‘웃찾사’ PD “정치풍자 못하는 코미디는 앙꼬 없는 진빵”=SBS TV 개그 프로그램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도 최근 시사개그 코너를 대폭 늘리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한 정치풍자 코미디 대열에 가세했다.

지난 16일 밤 방송된 ‘웃찾사’의 ‘살점’ 코너에서 개그맨 황현희는 영화 제목 ‘아가씨’를 ‘말 타는 아가씨’로, ‘미녀는 괴로워’는 ‘그녀는 괴로워’로, ‘검사외전’은 ‘검사외저래’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동료인 박종욱이 그러다 구속당한다고 경고하자 거침없이 “검찰에 가서 곰탕 한 그릇 먹고 오면 되지”라고 받아쳤다.

이어 황현희는 “제가 이러려고 개그맨이 된 게 아닌데 자괴감이 듭니다”, “올해가 무슨 해인줄 아시죠? 병신년입니다” 등의 대사로 세태를 꼬집었다.

개그맨 김정환은 최순실 씨의 얼굴 사진을 합성 영화 포스터를 꺼내 보이고 “뭐라구요? 왕이 두 명이라구요?” 등의 영화 대사를 패러디하기도 했다. ‘살점’은 JTBC의 시사프로그램 ’썰전’을 패러디한 코너로 지난달 신설됐다.

‘웃찾사’ 제작진은 지난 4월 폐지했던 ‘내 친구는 대통령’ 코너를 지난주 6개월여 만에 부활시켰으며, 촌철살인 풍자로 각광받다 작년 1월 폐지됐던 ‘LTE뉴스’도 이번 주부터 되살린다.

부활 후 첫 방송 된 ‘내 친구는 대통령’ 코너에서 대통령 역을 맡은 개그맨 최국은 고향 친구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모아 달라고 하자 “대통령이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로 모금을 할 수 있냐.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딨냐”고 호통을 쳤다.

이 같은 정치풍자 코미디에 불을 지피는 데는 한때 정치풍자의 명가로 꼽혔던 tvN의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가 큰 역할을 했다.

‘SNL코리아 시즌8’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최순실 씨를 연상시키는 각종 에피소드를 선보였다.

특히 배우 김민교는 흰색 블라우스와 머리에 선글라스를 올린 최씨를 흉내 낸 모습으로 등장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해요”라며 최씨가 검찰 출두 때 한 말을 패러디해 화제를 모았다. /연합뉴스

## 내일 TOP 7 첫 생방…3번의 무대로 우승자 가려

국내 원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의 ‘슈퍼스타K’의 8번째 시즌 권좌는 누구에게 돌아갈까.

‘슈퍼스타K’는 지금까지 생존한 7팀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제 남은 3번의 무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기획·연출을 맡은 김태은 CP는 22일 서울 신사동 엠큐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슈스케가 아니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가수, 음악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무엇보다 참가자들의 노래에 집중해서 이번 시즌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즌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즌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점에서도 내부적인 평가는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3년 연속 심사위원을 맡은 김범수는 “예선 때 보여줬던 기량만큼 못 보여주는 출연자들이 많이 안타까다”면서 “강한 심장으로 무대를 즐겼으면 좋겠고, 그렇게 즐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심사위원인 에일리도 “탑10 무대에서 참가자들이 모두 긴장해서 준비했던 것을 못 보여줬던 것 같다”며 “앞으로 즐기면서 후회 없는 무대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거미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출연자들이 지금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갈고닦은 실력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충고했다.

김연우는 “이번 시즌 출연자들은 역대 최고급의 실력을 갖췄다”며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슈퍼스타K 2016’는 지난 5월 첫 현장 예선을 시작으로 7개월 동안 다섯 차례의 오디션을 거치면서 치열한 경연을 펼친 끝에 120팀 가운데 7팀만이 살아남았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 5억원과 7인의 심사위원들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한 앨범 발매 혜택을 준다.

2009년 시작해 8번째 시즌을 맞은 ‘슈퍼스타K’는 공정성을 강화하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역대 가장 많은 7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새로운 경쟁 방식도 도입하는 등 변신을 시도했다.

‘슈퍼스타K 2016’는 오는 24일 밤 9시40분 톱4를 가리는 첫 생방송 무대를 선보인다.

생방송 심사는 심사위원 점수 50%, 대국민 문자투표 45%, 사전 온라인 투표 5%로 이뤄진다.

첫 생방송 주제는 ‘심사위원 프로듀싱 미션’으로 톱7과 7명의 심사위원이 일대일로 매칭돼 무대를 준비한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 / 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 20 광주MBC 뉴스투데이<br>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 30 KBC 모닝와이드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30 생방송 오늘 아침 | 30 SBS 아침연속극<br>〈사랑이 오네요〉 |
| 9 | 30 KBS 뉴스 |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br>40 여유만만 | 30 MBC 생활 뉴스<br>45 기분 좋은 날 | 3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br>25 SBS 생활경제<br>40 KBC 생활뉴스 |
| 11 | 00 대식가들 (재)<br>35 강연 100℃ 라이브 스페셜 | 00 수목드라마<br>〈오 마이 금비〉(재) | 00 주말드라마<br>〈불어라 미풍아〉(재) | 00 민영방송 공동기획<br>〈물은 생명이다〉<br>30 고향이 보인다 |
| 12 | 00 KBS 뉴스 12 | | 00 MBC 정오뉴스<br>20 수목드라마<br>〈역도요정 김복주〉(재) | 00 SBS 12뉴스<br>15 KBC 12뉴스<br>30 위대한 유산<br>55 테마스페셜 |
| 1 |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br>05 KBS네트워크특선<br>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br>55 별별가족 | 00 비타민 (재) | | 55 닥터 365 |
| 2 | 00 네트워크 특선다큐<br>교육소멸 보고서, 35년의 기록<br>5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 00 KBS 뉴스타임<br>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 20 텔레몬스터(재)<br>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 00 특집다큐 한국 신발사 |
| 3 | 05 한국인의 밥상<br>55 튼튼생활체조 | 00 자동공부책상 위키2<br>30 TV 유치원 | 00 MBC 뉴스<br>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br>55 프리파라 2 | 00 3시 뉴스브리핑 |
| 4 | 00 4시 뉴스집중 | 00 여유만만(재) | 25 MBC 일일특별기획<br>〈황금주머니 〉(재) |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
| 5 | 00 KBS 뉴스 5<br>30 전국을 달린다<br>40 남도 지오그래피 | 00 꼬마어사 쿵도령<br>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 00 MBC 이브닝 뉴스 | 30 SBS 뉴스퍼레이드<br>50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00 KBS 뉴스타임<br>20 2TV 생생정보 | 10 생방송 ‘빛날’ | 05 날씨와 생활<br>10 닥터 365(재)<br>15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
| 7 | 00 KBS 뉴스7<br>35 프로젝트TV 필통 | 5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br>55 MBC 뉴스데스크 | 15 TV 블로그 꼼지락<br>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
| 8 | 05 공감다큐, 사람<br>25 별난 가족 | 30 글로벌24<br>55 트릭 앤 트루 | 55 MBC 일일특별기획<br>〈황금주머니〉 | 00 SBS 8 뉴스<br>35 KBC 8 뉴스<br>55 영재 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 | 30 리얼스토리 눈 | |
| 10 | 00 시사토론’10’<br>55 숨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 00 수목드라마<br>〈오 마이 금비〉 | 00 수목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 |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
| 11 | 00 KBS 뉴스라인<br>40 특집다큐<br>〈제2의 도전, 실패에서 성공을 배운다〉 | 10 추적 60분 | 10 라디오스타 |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
| 12 | 30 2016 ABU TV SONG 페스티벌 | 10 스포츠 하이라이트<br>35 세상의 모든 다큐 | 30 MBC 뉴스 24<br>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br>나누면 행복 | 30 나이트 라인 |

###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시장기행〉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용감한 소방차 레이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시계마을 티키톡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즐거운 인생, 쎄시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 해장국과 자박이 두부〉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초대석
13:40 오 마이 미래 2035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코코몽3(재)
14:25 책과 팡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두키탐험대
15:20 꼬마기사 마이크
15:35 요술상자(2)
15:45 레이디버그(재)
16:15 두다다쿵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9:30 EBS 뉴스
19:50 달라졌어요(재)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미얀마, 축제의 땅을 밟다 3부 산족을 찾아서, 띠보〉
21:30 한국기행 〈가지마라 가을 3부 나 항상 그대를〉
21:50 EBS 다큐 프라임 〈세계문명사대기획 위대한로마〉
22:45 극한직업 〈김장 재료 수확〉
23:35 장수의 비밀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24:10 EBS 초대석 〈세계라는 책을 끝까지 읽다 -여행작가 이해욱〉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3일(음 10월 24일 己酉)

**子** 48년생 무리하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60년생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는 것이 옳다. 72년생 줄어드는 듯하다가 머지않아 증폭될 것이다. 84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한다면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09, 99

**丑** 49년생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의 원리 속에 기막힌 인연임을 알게 되리라. 61년생 자제하지 않는다면 급격하게 추락할 수도 있다. 73년생 성과물이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된다. 85년생 지금 즉시 바로 잡아두어야 뒤탈이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60, 45

**寅** 50년생 경험이야말로 국면을 타개하는 최상의 기준점이다. 62년생 생산적인 관계가 되도록 유도하자. 74년생 놓치면 후회하게 될 소중한 찬스가 생길 것이다. 86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음이 속 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9, 82

**卯** 51년생 아는 것이 오히려 우환의 씨앗이 되리라. 63년생 하늘의 도움이 클 것이니 품은 뜻을 펼쳐 볼 수 있는 때이다. 75년생 이전의 양태와는 전혀 별개이니 따로따로 다뤄야 할 문제이다. 87년생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행운의 숫자 : 57, 84

**辰** 40년생 체면 차리다가 중요한 것을 실기할 수도 있느니라. 52년생 신속하고 정확해야만 한다. 64년생 태평스런 항해가 될 것이다. 76년생 쾌도난마해야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88년생 순풍이 불어온다. 행운의 숫자 : 04, 78

**巳** 41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 53년생 주체성 있는 관점이 절실하다. 65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77년생 기본적인 관리에 충실 한다면 문제없겠다. 89년생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하리라. 행운의 숫자 : 69, 40

**午** 42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다가오고 있는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케 할 것이다. 54년생 실질적인 이익은 적고 할 일은 많겠다. 66년생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78년생 잠시 보류해 두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7, 94

**未** 43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55년생 미리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 67년생 분명히 허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79년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9, 93

**申** 44년생 적폐가 보이거늘 즉시 바로 잡아야 하느니라. 56년생 사소한 것에서부터 위험이 싹틀 수 있다. 68년생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80년생 목전에서 실제로 드러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1, 35

**酉** 45년생 잡다한 번거로움을 차치하고 추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57년생 계획된 바를 진행하기에 썩 좋은 날이다. 69년생 드디어 학수고대해오던 결단의 시기가 되었느니라. 81년생 자료를 종합한 다음에 행하라. 행운의 숫자 : 65, 21

**戌** 46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58년생 조언을 구한 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 70년생 주체적으로 고려한 후에 과단 하라. 82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인과 관계가 성립하겠다. 행운의 숫자 : 11, 37

**亥** 47년생 일단 보류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다. 59년생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귀중한 기회를 갖는다. 71년생 요행을 바라지 말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낫다. 83년생 석연치 않다면 과감하게 배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92,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